영어어문교육 *제17권* 4호 2011년 겨울

영화를 이용한 비평적 문화교육 연구

양미란*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영주**
(명지대학교)

Yang, Miran & Bang, Youngjoo. (2011). A study on the effective cultural instruction based on the critical approach through fil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4), 313-337.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instruction based on the critical pedagogy through film. The participants were 21 college students enrolling 'Understanding American/British culture'class and the class was 15 week long. During class, they discussed and selected the cultural topics related to the movies, complete the research papers, and then gave presentations. The students'portfolio, which consists of the goal statements, research papers, and the reflective journals, was analyz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r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struction was effective in five aspects. They are, 1)accumulation of the cultural knowledge, 2)better understanding of the target culture and its people, 3)acquisition of the critical perspectives toward the target and their own cultures, 4)teaching method, and 5)increase of the motivation for studying other culture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instruction should be applied to English-medium class with more advanced students.

[cultural instruction/critical pedagogy, 문화지도/비평적 교수]

I. 서론

세계는 지금 'globalization', 'glocalization' 등의 기치 아래 국가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다양한 매체의 출현과 그 소산물들이 전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공유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걸쳐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일민족, 단일문화 등을 가진 사회보다는 다민족, 다문화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과

* 제1저자 ** 교신저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같은 특정국가가 소유와 지배를 독점하는 언어가 아닌 세계언어가 되었다.

영어교육은 이제 언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언어사회적, 화용적 측면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관점에서 학습되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영어교육에서 특히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언어교육에 문화를 접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성기완, 2009; 이창봉 & 박주식, 2007; 정동빈 & 남은희, 2005; 최숙희, 2007; Bae, 2004; Na & Kim, 2003; Kim, 2010; Scollon, 1998; Sung, 2002, 2007).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왔다. Kramsch(1998)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첫째, 언어는 문화적 현실을 표현하며, 둘째, 언어는 문화적 현실을 구성하고 있고, 셋째는 언어는 문화적 현실을 상징화하는 수단이므로 어떤 목적의 외국어학습이든 그 방향은 '문화에 기반을 두어야(culture-bound)' 한다(Valdes, 1986)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어'를 중립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과 정치성이 내재되어 있는 교육의 요소로 보아 외국어교육에서도 언어의 능숙도 달성만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로 현상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 불공정, 옳음과 그름 등을 찾아내어 비판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의 목표가 수정되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Philipson(1992)은 언어교수법이 언어의 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사회의 불평등성과 부의 불균형한 분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문화제국주의를 확산시켜왔다고 주장하면서 비평적 접근(Critical approach)에 바탕을 둔 언어교육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ennycook(1999)은 '언어'는 사회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런 정치적 특성을 무시한 영어교육은 기성사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체계를 새로운 세대에게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적인 학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언어교육의 중요한 영역인 문화교육도 언어를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문화를 그 부산물로 보아 문화의 객관적 지식을 가르치거나, 목표문화와 그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에 무조건 동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반영되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고찰할 수 있는 비평적 사고능력이 함께 학습되어지도록 문화교육의 방향전환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Byram(1997)은 언어학습은 의사소통의 과정에 관해 배우는 것이지만, 문화학습은 분석과 비평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습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다름(otherness)'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들이 그 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세상들에 대한 인식에 도전하고 이런 인식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를 주교재로 하여 비평적 접근을 차용하여 영화에서 제시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화주제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문화적 주제를 선정하여 인터넷, 도서 등의 자료를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기문화와 비교해보는 기회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지식습득이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문화와 목표문화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문화지도 방법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Tomlin과 Stempleski(1993)은 '문화적 인식'을 문화적으로 유도된 언어사용과 의사소통의 행태가 충돌하는데 대한 민감성이라고 정의하였고, Byram (1998)은 문화적 인식을 자신의 문화를 성찰하는 능력이며, 당연히 받아들이던 자신의 가치관이나 믿음에 의문을 던지며, 타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의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목표는 더 이상 원어민 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지식이 아니라, 다문화주의 환경에서의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타문화권의 화자와 의사소통을 하기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외국어의 영역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적 변화는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의 목표였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으로는 언어의 숙달된 기능만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었다.

Byram(2000)은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1) 태도-자기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호기심, 2)지식-자기문화와 타문화에서 나오는 소산물(products)과 행태 및 사회적, 개인적인 상호작용, 3)자기문화와 타문화의 기록이나 사건들을 연관짓고 해석하는 능력, 4)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5)자기문화와 타문화에서 나오는 소산물이나 상호작용 등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즉,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문화와 비교, 분석하고 비평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렇게 형성된 문화적 지식과 시각을 타문화권의 화자들과 의사소통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Byram과 Morgan(1994)은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는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며 자기문화와 타문화를 비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타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영화, 문학, 역사, 정치제도와 같은 관습, 제도, 문화적 소산물 등에 대한 학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Crozet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와 Liddicoat(1999)는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단계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1) 문화는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 교수되어야 한다. 즉, 토론과 분석을 통하여 문화적 스키마와 패러다임에 학습자의 관심이 돌려지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2) 학습자들은 자기문화와 타문화의 비교할 수 있는 학습활동들을 하여야 한다.
3) 학습자들은 자기언어문화(linguaculture)와 목표언어문화 사이에 제3의 공간(third place)을 형성하기 위한 탐구활동이 필요하다(Pegrum, 2008에서 재인용).

2. 비평적 문화교육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교육을 단순히 '문화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교수방법, 교수자료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문화를 고급문화(Culture), 일상적인 문화(culture)로 범주화 하거나, 문화교육의 요소들을 범주화하고, 문화동화의 단계를 설정하는 등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Flowerdew & Miller, 1995, Hende, 1980, Seelye, 1988; Scollon, 1995).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상대주의적 인식론과 구성주의 교육 패러다임(Vigotsky, 1978)의 영향으로, 문화를 더 이상 객관적인 지식이며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문화' 란 시대와 장소의 맥락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는 상대성을 지니며,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그 개념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을 갖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근거한 문화교육이 새롭게 제시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김영미, 2002). 구성주의에서의 '개인'이란 특정사회의 문화, 사회, 역사 등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그 개인은 자신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사회현상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이해해 가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특정지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 영향으로 1990년대 외국어교육 분야는 교육의 영역을 단순한 언어교수를 넘어 언어사용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동성을 강조하며 외국어교육에 있어 비평적 접근(critical approach)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외국어교육의 목표가 '각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분석 및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비평적 이론과 교수법을 바탕으로 하는 영어교육의 교과과정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제한된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실용중심의 기능적 분야에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탈피하여 비평적 관점을 통해서 교사와 학습자가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영어로 인해 형성되는 자신의 다중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을 깨닫고 사회와 언어의 역할, 언어의 불평등성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평적 교수법은 주요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바탕으로 인종적, 성적, 계급적 결정주의의 형성과정이나 폐해, 현재의 지식의 분배과정과 계층적 권력 구조의 영향에 대해 역사,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요인들과 연계하여 가르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김영미, 2002; 성기완, 2009; 이창봉 & 박주식, 2007; Brown, 2001; Freire, 1970)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또한 비평적 접근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Kramsch(1993)는 외국어 화자들이 외국어를 사용할 때 목표문화 또는 자기문화 중 어느 한 쪽에서 형성된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문화와 목표문화 사이의 어떤 지점, 즉 '제3의 공간(third place)'과 인식기준에 따라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3의 공간'이란 자기문화와 목표문화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야 생기는 공간이고 이를 위하여서는 목표문화와 자기문화에 대한 비평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모국어나 자기문화로부터 형성된 한가지의 정체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공간, 시대에 적응해가는 복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단지 각 문화에 대해 비평적 거리를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뒤집어 사고할 수 있는 시각 또한 형성해가게 하는 것이다.

이창봉과 박주식(2007)은 한국의 영어교육이 기능주의 언어관에 치우쳐 학습자가 처해있는 역사성이나 문화적 환경을 무시해왔으나, 비평적 영어교육은 학습자가 처한 환경이 자기문화와 타문화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새롭게 구성해 가는 능동적 주체임을 자각하게 하는데 영어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비판적 영어교육 커리큘럼으로 문화중심의 교과목(Culture-oriented curriculum) 개발과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들이 영미문화현상을 접하면서 주체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한국문화 현상과의 비판적 비교를 통해 문화를 비교, 조명하는 시각을 키우도록 교육한다.
2) 문화교육은 단순 사실 전달 위주의 교육(a facts-only approach)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접근법(process approach)을 택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한 사실과 경험을 비판적 지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3)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온 미국 내의 소수민족의 삶을 담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 영국과 미국이외에 세계의 다른 영어권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과목을 제공하여 영미문화권의 다양성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학습자들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비판적이면서도 성숙한 기본 인식의 틀을 교육하여 문화제국주의 및 문화다원주의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기완(2009)은 영어교육의 주변성(peripherality), 즉 영어교육이 기능적 분야로 인식되는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비평성(criticality)을 갖춘 영어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여야 하며, 영어교사는 단순한 언어교육에만 힘쓸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정치적 의도를 인지하고 이런 정치,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비평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사훈련 프로그램 등도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다중 문해능력

현대사회는 언어나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IT 의 발달로 매체가 다양해지고, 이를 매개로 한 풍부한 시각자료들이 넘쳐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가 이를 공유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해하고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비평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Barton과 Hamilton(2000)은 문해능력(literacy)을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복수 문해능력으로 간주하여, 세가지의 문해능력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1) 영화나 컴퓨터와 같은 매체관련 문해능력, 2) 타문화와 언어에 대한 문해능력, 그리고 3) 학문 혹은 직장과 같은 장소에서의 문해능력이 그것으로 이 모두를 포함하는 복수의 문해능력이 문해능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해능력이란 '문자'를 읽는 능력(readin the word)이 아니라 '세계'를 읽는 능력(reading the world)임을 감안할 때(Freire, 1987), 컴퓨터나 전자, 하이퍼텍스트의 문해능력이나 영상자료의 문해능력을 포함한 복수문해능력(multiliteracies)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런 문해능력을 일컬어, 시각적 문해능력(visual literacy), 전반적 문해능력(global literacy), 또는 유동적문해능력(fluid literacy)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Pegrum, 2008).

그러므로, 외국어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고 있고 언어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영화나 대중문화, 인터넷 같은 자료들이 널리 쓰이며, 더구나 많은 영상자료들 중 특히 영화는, 목표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므로 이것들은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서 학습자들이 비평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들이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매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이는 다시 자기문화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여 자기문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동시에 형성하게 해준다.

특히 영화는, 어떤 문화가 자기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그 문화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나 보고자 하는 방식, 혹은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자기문화를 보여주는 방식 등을 알려주는 것이어서, 영화는 타문화권이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교사는 영화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름(otherness)'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분석력과 이해력을 심화시키고, 타문화권을 인식하는 시각을 넓혀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문화적 인식을 고양시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매체의 발달로 학습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문제도 함께 갖게 되었는데,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미디어에 저항할 수 있는 비평적 힘은 모국어 사용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실제로 외국어학습자들은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접하게 되면 이해에만 몰두하게 되어 모든 것이 사실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느끼게 되어 텍스트의 비평적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비평적 문화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교과과정이나 적절한 교수법이 부족하고 교육자료 또한 다양하지 않아 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이 문화교육을 어렵다고 느껴 이를 기피하거나, 문화교육을 외국어 교육의 주변적 영역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im, S. A.(2010)는 그 이유를, 1)문화교육의 가이드라인의 부재, 2)교사들의 문화적 지식 부족, 3)체계적이며 적절한 교수법의 부재, 그리고 4)교사들의 자질에 따른 문화교육의 효과성 격차로 인해 기인한다고 하였다.

김영미(2002)는 비평적 문화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비평적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언어가 정치적 계급을 위한 권력을 유지,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언어의 정치적 속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문화는 사회적 맥락에서 지대와 사회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사실적(authentic) 텍스트의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자료 등을 무분별하게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들이 항상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교재선택 및 교수방법이 다각도에서 비평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3) 외국어교육에서도 문화, 종족, 성별, 성적취향, 연령에 토대를 둔 '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들'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식이 아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적 지식(transformative knowledge)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4) Kramsch(1993)가 주장하는 '제3의 문화공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가치들을 뒤집어 생각하게 하는 비평적 읽기를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에서도 학습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비평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3년제 대학에서 개설된 '영미문화의 이해'수업에서 영화를 주교재로 활용하여 영화에 나타난 영미문화의 주제들을 탐구하고 우리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비평적 영미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방송과 예술관련 전공들로만 구성된 경기도 소재 3년제 대학에서 개설된 '영미문화의 이해' 과목을 수강한 21명의 학생들로, 남자 11명, 여자 1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있다. 2학년은 12명과 3학년 9명으로 전공은 방송극작과, 영상제작과, 방송기술과, 방송보도제작과, 방송연예과, 광고홍보과, 디지털영상과의 학생들이었다.

2. 수업절차

본 강의는 한 학기 15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영화보기,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주제에 대한 토론, 문화관련 탐구주제 선정,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설계되었다. 첫 주에 영미문화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강좌가 있었고 영미문화의 특징은 'American ways', 영미문화의 이해와 탐방,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미국문화 읽기, 그리고 '영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소개된 주제들을 요약하여 학생들에게 소개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특징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며 많은 영미문화 관련 자료들에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특징들임을 주지시키고 앞으로의 수업에서 이 특징들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를 통하여 영미문화 관련 주제들을 선정하여 자료조사, 탐구를 하게 되고 이 주제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 자신의 견해를 토론하고 우리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문화와 타문화를 보는 시각을 각자 형성해 나갈 것이 목적임을 주지시켰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강의는 모국어로 진행된 수업이었고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자가 아니라 학습자중심 활동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였다. Rivera (1999)는 텍스트를 비평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텍스트에 몰입을 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따라서 학습자들의 비평적 읽기는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Hammond와 Macken-Horarik(1999)도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은 비평적 접근법을 활용한 교수방법에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있는 교수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은 언어숙달도가 문화적 지식과 비평적 견해를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목표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토론이나 발표, 특히 자료의 접근에 있어서 표면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어 비평적 접근을 활용한 지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모국어로 진행되었다.

1) 영화보기

수업의 주교재로서 8개의 영화를 선정하여 해당 주에 선정된 영화를 보고 오는 것이 숙제로 주어졌고, 수업에서 10문제 퀴즈를 통하여 숙제수행 여부를 평가하였다. 퀴즈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이름, 사건, 사건의 이유, 결과 등 숙제수행 여부만을 측정하는 단순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영화의 선정은 'American Ways', '영화로 보는 미국', '영상으로 읽는 미국문화의 안과 밖', 그리고 '영국인의 문화와 정체성' 등의 참고자료들에서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2) 탐구주제 선정

학생들은 숙제로 주어진 영화를 본 후에 수업시간에 영화에 나타난 문화들에 대한 주제들을 조 별로 토론하고, 각자 영화에 나타난 사건, 문화, 인물, 배경 등을 토대로 탐구주제를 선정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한 탐구주제의 문화관련성과 적절성 여부, 예상되는 조사 및 탐구의 난이도 조정, 탐구주제의 심도 및 경계영역 조정 등에 관여하였고 보고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조사자료는 도서, 인터넷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였고, 자료출처를 명기하고, 탐구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탐구과정에서 느낀 점, 그리고 우리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견해 등을 기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각 조의 발표자는 각 조원의 탐구보고서를 대학의 각 과목 컴뮤니티에 올리도록 하여 이를 학생들이 공유 하도록 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
선정된 영화 및 영화 별 문화주제

영화목록	영화 별 문화주제
늑대와 춤을	개척시대, 프론티어정신, 남북전쟁, 미국원주민의 문화
아바타	영화 속 서구문화와 비서구문화 비교, 할리우드 영화 속 마초히어로
갱스오브뉴욕	미국의 이민자, 다민족문화(Salad bowl), 남북전쟁
포레스트 검프	미국의 민권운동, 히피문화, 베트남전쟁, 60년대 민권운동
천일의 스캔들	영국의 왕실, 영국의 종교
골든에이지	영국의 식민지 개척 및 정책,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경제
식코	영국의 복지정책, 사회비판적 브릿팝
크래쉬	미국의 다문화 현상

3) 토론 및 발표

다음으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유사한 탐구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문화적 정보, 사실, 자신의 견해 등을 토의하였고 조 별로 탐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조는 각 조원들의 탐구자료를 발표자가 종합하여 발표하였고 발표 후에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조원은 3명으로 구성되었고, 각자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발표자는 발표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발표하였다.

발표 중 교사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요점들을 주지시켰고, 발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4) 평가

본 강의에 대한 평가는 퀴즈점수, 학기말 오픈북 시험, 포트폴리오를 평가하였으며 학기말 오픈북 시험은 주요주제의 개요와 각 주제별 우리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견해를 기술하는 것이었고 컴퓨터실에서 실시되었으며, 학생들은 이미 과목 컴뮤니티에 올려져 있는 자료나 인터넷 자료 등을 자유롭게 참조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포트폴리오는 15주의 수업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1)목표설정 기술서(Goal statements), 2)15주 동안의 탐구보고서, 3)자기성찰노트(Reflective journal)로 구성되었다. 목표설정 기술서는 첫 번째 주에 작성하였는데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들을 설정하여 기술하는 것이었고 자기성찰노트는 15주 동안 자신이 성취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 이유와 수업의 어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분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한 각각의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수업방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 것은 학습자들의 포트폴리오였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목표설정 기술서는 첫 주에 학습자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동기와 기대하는 학습목표들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 자료를 학습자들의 수강동기의 종류, 그리고 비평적 영미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문화학습에 대해 갖고 있던 학습자들의 개념과 영미권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 등으로 범주화하여 빈도수를 제시하였다.

자기성찰노트는 마지막 주에 학습자들이 한 학기 동안 과제수행 과정에서 가졌던 생각이나 견해, 수업방식의 만족도와 본인들에게 유용했던 수업방식, 유용하지 않았던 수업방식 등의 기술과 함께 첫 주에 제출했던 목표설정 기술서와 비교하여 어떤 목표가 달성되었고 또한 달성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미리 학습자들에게 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노트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학습과정 중 자기문화와 목표문화에 대한 태도 및 시각 변화, 수업에서 학습자 스스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학습목표들, 수업방식에 대한 의견 등을 빈도수 별로 범주화하여 수업의 효과와 학습자들의 비평적 시각 형성 유무, 변화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고 학습자들의 기술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4. 분석 및 토의

1) 수업 전 목표설정 기술서 분석 결과

수업실시 전에 작성한 목표설정 기술서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의 수업동기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미문화의 지식 습득, 영미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영어습득에 대한 도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2
학습자들의 수업 전 학습목표

수강동기 및 수업 전 학습목표	빈도수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	21
영미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사고방식 이해	18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마인드 함양	13
영어습득을 위한 도움	8

강의를 통한 학습자들의 목표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은 영국과 미국문화의 차이나 특징에 대한 지식 습득, 역사를 토대한 문화에 대한 지식습득 등이었고, '영미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해'는 영미권에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갈 경우를 대비해 문화에 대한 지식, 영미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싶다거나, 외국인 친구나 룸메이트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세계화에 발 맞추어 글로벌마인드를 갖기 위해 수업을 선택하였다는 학습자들은 세계시민에게 어필하는 스토리를 쓰기 위해, 다른 나라사람들에게도 공감이 가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 선택하였다는 학습자들이었다.

Moran(2001)은 문화를 아는 것(cultural knowing) 을, 1)목표문화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knowing about), 2)목표문화에서의 행동방식을 아는 것(knowing how), 3) 목표문화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것(knowing why), 그리고 4)목표문화를 통해 습득한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knowing oneself)이라 하였다. 수업 전 자료분석 결과 학생들은 문화학습을 단순히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정치성을 배제한 채, 문화를 비정치적인 '문화적 지식'으로 정의하여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과연 어떤 종류의 문화와 문화적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서 고급문화(Culture) 와 일상적인 문화(culture)로 이분화시킨다거나, 문화동화(acculturation)의 단계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목표문화에 대한 완전한 동화를 목표로 한다거나 하는 문화적 사대주의가 아직 많은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교육의 개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목표설정 기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문화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세계사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미숙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김정길, 6/13, 2011).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문화에 대해 알아야 하니까 영미문화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김태경, 6/13, 2011).

…물론 예전부터 영어권 국가의 문화콘텐츠 수입이 계속되어왔지만 앞으로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문화콘텐츠 생산을 목표로 하는 저로선 당연히 수업의 당위성을 느꼈습니다(김동현, 6/13, 2011).

…이 강의를 선택했던 이유는 실용음악(대중음악)이라는 음악이 본토가 영국과 미국이다. 그래서 평소 외국뮤지션들의 동영상과 기사거리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들의 삶과 문화가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었다(이승혁, 6/13, 2011).

…글로벌시대에 작가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나라 문화를 이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공용어인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이 필수이다. 이 수업이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 같다(김대성, 6/13, 2011).

학습자들의 동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미국, 영국의 문화를 선진문화, 음악의 본토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외국문화의 대표 격으로 무의식중에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동기로는 영어학습을 위하여 문화를 아는 것이 필요해서, 영어에 친숙해지고 싶어서, 영어로 된 자료를 읽을 때 도움이 되려고 등이 있었는데, 학습자들이 언어학습에 문화적 지식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성찰노트 분석결과

학습자들의 자기 성찰노트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꼽았으며, 문화나 사회현상을 보는 비평적인 시각이 형성되거나 이를 통하여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음으로 빈도수가 많은 성취영역이었다. 또한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 발표 등을 통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수업방식에 매우 만족했다는 지적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 흥미유발과 글로벌 역량을 습득하였다는 성취감이 그 다음으로 기술되었다.

표 3

자기성찰노트 분석결과

수업과정 및 수업 후의 문화교육의 성취영역	빈도수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 달성	21
타문화 이해 달성	19
비평적 관점 형성 및 자기성장	14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	14
더 많은 문화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8
기타	4

(1)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

비평적 접근(Critical approach)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교육에서는 객관적인 문화적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지양한다. 문화교육 내용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던 종래의 문화교육은 제국적 문화를 여과없이 주입시켜 무비판적인 문화동화를 강요하여 교육의 불평등성을 유발한다고 비판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문화적 지식 축적에 성취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습자들이 문화적 지식을 얻는 것을 문화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만큼, 문화교육에 있어서 목표문화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인 지식의 제시는 교육현장에서 지양되어야 할 중요한 고려 점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목표언어가 사용된 각종 텍스트, 영상자료, 시각자료들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편견들을 일깨워주는 노력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영화를 보고 조별 토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각자가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학습자들은 영화에 담긴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현상, 사건들을 보며 영화 속에서 제시된 주제들 이외에 매우 풍성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스스로 도출해내고 탐구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과제수행 시에 한국문화와 비교해 보는 것을 독려하였는데 독특하고 창의적인 비교들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였던 문화적 주제들과 이에 상응하여 비교하였던 한국문화에 대한 주제들은 표 4와 같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4

학습자들이 선택한 문화적 주제 목록

영화목록	탐구주제	우리문화 비교
늑대와 춤을	서부개척시대 및 개척정신	일제강점기
	미국원주민 탄압정책	일제강점기의 탄압정책
	미국원주민의 문화	
	남북전쟁의 원인 및 결과	한국전쟁의 원인 및 결과
	미국지도 및 지역구분	
	미국의 지역별 특징비교	한국의 지역별 특징비교
	외국영화의 오리엔탈리즘	
아바타	아바타에서 보여지는 비서구문화	한국문화와 서구문화 비교
	미국원주민의 문화와 아바타에서 보여지는 비서구문화의 비교	
	Pax Americana	한국영화에 나타난 영웅의 특징
갱스오브뉴욕	아일랜드계의 이민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중국계의 이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한국인의 이민	정서
	뉴욕의 역사	
	미국의 이민정책	
	남북전쟁 기간의 징병제도	우리나라의 징집제도
	드래프트 폭동	L.A 폭동(로드니 킹 사건)
포레스트 검프	베트남전쟁의 원인과 결과	
	반전운동 및 히피문화	민주화 항쟁
	흑인민권운동	외국인 차별 정책과 한국인의
	비틀즈와 엘비스프레슬리	정서
천일의 스캔들	영국의 종교	영국인과 한국인의 특성비교
	영국의 왕가	지리적 유사성
	영국의 지리적 배경	
골든에이지	영국의 식민지 정책	한류의 외국 확산 현상
	영국의 미국대륙 개척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해당 시기의 영국의 정치제도	
식코	영국과 미국의 복지제도 차이	한국의 복지
크래쉬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정서	외국인 연루된 국내 사건

다음은 학습자들이 문화적 지식습득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영화를 보니까 시대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이것들을 갖고 문화를 유추할 수 있어서 좋았다(정영은, 6/13, 2011).

…자료를 찾느라고 매우 힘들었지만 그렇게 알아가게 된 것을 친구들에게 알고 있었냐며 말해주었을 때, 친구들이 흥미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재미있었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느꼈다(김지은, 6/13, 2011).

이 수업을 통해서 상식이 많이 느는 느낌이 들어 매우 좋았다.
또한 역사나 사회현상을 통해 문화를 유추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성향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김대성, 6/13, 2011).

수업에서 몰랐던 영미문화에 대한 사실들을 자료를 찾으며 알게 된 것이 뿌듯했다. …하지만 정보습득량을 많아지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 사실들이 나에게 상식이 되고 인생살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어서 재미있어졌다(박훈민, 6/13, 2011)

…영어공부를 좋아해서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팝송, 영화 등을 많이 보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배경지식의 힘 재발견' 하였다. 요즘은 미국영화 보는 재미가 더 커졌는데, 전달하려는 메시지 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남연정, 6/13, 2011).

(2)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달성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해 성취한 것으로 지목한 범주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강의실시 전에 작성한 목표설정 기술서에서도 영미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고 기술한 빈도수가 두 번째로 높았다. 학기말에 기술한 자기성찰 노트에서도 학습자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기술을 발췌한 것이다.

나는 미국의 백인은 다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이민한 사람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민의 원인도 다양해서 미국을 왜 salad bowl이라고 부르는지 이해 하게 되었다(조주현, 6/13, 20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이 수업에서 배운 것으로 미국에서 온 룸메이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외국인을 볼 때 그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더 먼저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박지윤, 6/13, 2011).

> 문화의 차이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아니라 이해를 거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따라서 이질감, 갈등 등은 열린 마음으로 사물 을 바라보지 않아서 발생되니까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박서화, 6/13, 2011).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학습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전히 문화를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국한하여 유학이나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얻기 위한 강의가 문화교육이라고 간주하고 수업 후에도 이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수업의 목표를 제시할 때, 문화교육은 문화라는 전달이 가능한 객관적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목표문화와 자기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내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는 영국이나 미국인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현실적이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구체 적인 정보는 얻지는 못한 것 같다(김동현, 6/13, 2011).

(3) 비평적 관점 형성 및 자기성장

이 수업의 과제가 학습자들이 영화를 보고 조 별 토의를 통해 각자 자신의 흥미를 끄는 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주제와 연상되는 한국문화를 비교하고 그 견해를 쓰도록 하는 것이어서, 학습자들은 이를 조사,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혹은 도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의 자료들에 접근하게 되고 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비평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수업방식은 주제에 대한 비평적 관점, 즉 목표문화와 자기문화를 보는 '제 3의 공간(Kramsch, 1993)' 또는 '문화간 정체성(Intercultural identity)'을 형성해가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수업방식으로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어떤 문화적 지식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문화 속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고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비평적인 관점을 점진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시각과 태도 변화는 다음에 잘 나타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처음에는 자료조사가 힘들었는데, 조사하다가 보면 전혀 다른 의견이 들어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 혼란스러운 적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그 주제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니까…(황금빛, 6/13, 2011).

인디언이 원시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디언에 대한 탄압을 알 수 있었고, 서부개척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느꼈다(김정길, 6/13, 2011).

서부개척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화된 미국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태상미, 6/13, 2011).

흑인차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화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나 중국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김영현, 6/13, 2011).

미국의 영웅에 비해 한국영화에서 나타나는 영웅은 세계를 구하거나 테러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는 인간적이고 소박한 인물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생하고 죽거나 한다. 미국영화에서 보는 영웅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피엔딩이 많다(태상미, 6/13, 2011).

Pax Americana 를 조사하면서 한류의 힘에 대해서 생각했다. 만일 한류가 더 확산되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을지 생각해 봤다(정영은, 6/13, 2011).

영화에서 돈이 있으면 징병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나왔는데, 현재 모병제인 미국을 조사하면서 가난한 라티노나 흑인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부자는 군인을 가지 않으니 지금도 그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 병역비리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하지수, 6/13, 2011).

나에게는 포레스트 검프가 가장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 영화가 위험한 영화라는 글이 있었다. 그것은 시키는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거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태상미, 6/13, 2011).

학습자들은 타문화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또 문화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이 성숙해졌다고 생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였는데, 이 수업방식이 학습자들이 세계를 읽는 눈(reading the world)을 형성하여 주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르고 살아가도 무방한 내용이라 생각했던 '타문화'에 대해 알수 있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영화를 보더라도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하며 볼 수 있어서 큰 지식이 하나 더 생긴 내가 한층 더 자랄 수 있었던 기회였다(김지은, 6.13, 2011)

> 나는 춤추고 음악하는 길을 택하였지만 이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일터에서 떠올리며 넓은 시야와 이해심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해가고 싶다(남연정, 6/13, 2011).

> 이 수업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제로써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목이름처럼 영미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 배운 것을 얼마나 앞으로 삶에 반영하는 가가 중요한 것 같다(박훈민, 6/13, 2011).

> 나는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영미문화를 무조건 우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보게 되어 흥미롭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안태민, 6/13, 2011).

(4)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

이 수업방식에서 교사는 강의를 통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한 탐구주제의 문화관련성과 적절성 여부, 예상되는 조사 및 탐구의 난이도 조정, 탐구주제의 심도 조정 등에만 관여하며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조정하는 조정자였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준비하여 조 별로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수업방식은 학습자중심 수업, 참여를 통한 토론수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Crookes와 Lehner(1998)는 ESL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비평적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세상의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비평적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학습자중심적, 가치기반적, 다문화적, 경험적, 연구지향적, 그리고 간문화적 교과과정을 통해서 가능' 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okes와 Lehner가 제시한 교수방법 중, 학습자중심적, 참여적, 가치기반적, 연구지향적 교수방법을 차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평가방법으로 제시된 포트폴리오는 학습자들이 수업의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과정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이었다. 수업의 효과는 다음의 발췌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숙지한다는 생각으로 하니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여태껏 했던 어떤 과제보다 뿌듯하고 보람차고 정말 순수하게 재미있었다(박훈민, 6/13, 2011).

> 흥미로운 커리큘럼, 특이한 커리큘럼으로 영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김동현, 6/13, 2011).

> 나는 문화라고 해서 그들의 의식주나 생활방식 만을 배울 줄 알았는데,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여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같은 주제로 다양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서 그 문화에 대해 보다 더 알 수 있었다(김영현, 6/13, 2011).

>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알게되는 것이 참 많았다. 정말 신선한 과제의 세계였다.(남연정, 6/13, 2011)

> …타과가 모여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신선했다(이주봉, 6/13, 2011).

> …탐구하려는 주제를 선정할 때 내가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조주현, 6/13, 2011).

(5) 더 많은 문화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초반에는 교사의 제안을 토대로 주제를 찾았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흥미있는 주제를 빨리 찾고 보고서의 질도 높아지고 풍부해졌다. 또한 다음의 발췌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열이 더 생겼으며 적절한 자료에 접근하는 능력과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능력도 나아졌음을 기술하고 있다.

> 이 수업을 마치고 뿌듯하게 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였다. 처음에 조사한 것과 나중에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점점 생각도 많아지고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열심히 했다는 게 보였다(하지수, 6/13, 2011).

> 나는 미국에서 인디언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지 그들이 탄압을 받았다는 것조차 지금 알았다.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감정에 동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되기까지 했다. 나는 수업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영미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김영현, 6/13, 2011).

> 처음에는 자료를 찾지 못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나중에는 자료들을 읽고 선별하면서 알게 되는 상식이 많아져서 뿌듯했다. 지금은 영미문화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이태리 등 유럽국가들의 문화도 궁금해진다(박지윤, 6/13, 2011).

Ⅳ. 결론

최근의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목표는 더 이상 원어민 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지식이 아니라, 다문화주의 환경에서의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타문화권의 화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외국어의 영역으로 재인식하게되어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성취보다 오히려 문화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의 중요성이 더 요구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영어교육의 교과과정이 영어의 정치성 및 사회성을 무시한채 지나치게 기능주의로 가고 있음을 문제시하며 비평적 영어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문화교육도 비평적 교수(critical pedagogy)에 입각한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교육과정, 교수법, 교육자료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화를 주교재로 하여 비평적 접근을 통해 영미문화에 대한 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비평적 관점 형성, 문화적 인식 고양 등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자들은 수업 전에는 문화교육을 단순히 문화적 지식을 쌓고, 목표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학기의 수업이 실시된 후,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이 수업방식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첫째, 문화적 지식의 다양한 습득 달성, 둘째, 타문화에 대한 이해로 글로벌마인드 형성, 셋째, 학습자 스스로 선택한 주제로 흥미유발, 또한 토론, 탐구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의 자료들을 접함으로서 비평적 시각과 자신이 성장했다는 느낌, 그리고 넷째, 더 많은 나라들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유발 의 측면이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문화적 지식 습득에 성취감을 많이 느꼈으며, 이는 문화교육에서 제시되는 문화적 지식들이 무분별하게 제시되지 않도록 교사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비평적 관점을 갖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잣대를 활용하여 자료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에서 제시된 자기문화와 목표문화의 비교를 위한 학습활동들이 문화교육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을 고양하고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여 목표문화와 자기문화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며 학습자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수업설계의 측면에서 Crookes 와 Lehner(1998)가 주장하는 참여적, 학습자중심적, 가치기반적, 다문화적, 경험적, 연구지향적, 그리고 간문화적 교과과정 중,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학습자중심적, 참여적, 가치기반적, 연구지향적 교수방법이 학습자들에게 자율권을 주어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반영한 교수방법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은 모국어로 진행된 수업이었으나 언어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들의 경우, 이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목표어로 가르치게 되면, 다른 언어기능, 즉 자료읽기, 보고서쓰기, 발표하기, 발표듣기를 통해 언어의 4가지 기능의 향상과 함께 '제3의 공간'인 목표언어문화와 자기언어문화 간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의 문화주제가 사회언어적 측면보다는 역사나 사회현상에 치우친 면이 있어 이를 지적한 학습자들이 있었고 향후의 연구에서는 사회언어적, 화용적 측면 등 균형이 있는 문화자료의 선택 문제 또한 수업의 내용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곤. (2007). *영화로 보는 미국*.경기도 파주시: 살림.

김영미.(2002). EFL에서 비평적 영미 문화교육의 방향성 고찰.*외국어교육, 9*(3), 243-264.

박우룡. (2008). *영국인의 문화와 정체성*. 서울:소나무.

백승진. (2009). *영상으로 읽는 미국문화의 안과 밖*.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출판부.

성기완.(2009). 비평적 영어 교수, 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 16*(1). 199-231.

이창봉, 박주식.(2007). 문화제국주의와 비판적 영어교육 커리큘럼. *응용언어학, 23*(1). 173-200.

정동빈, 남은희(2005).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웹 기반 문화교육에 의한 학습효과. *영어어문교육, 11*(4), 45-60.

최숙희(2007). 영어교육에서의 전통적 가치관과 미국문화. *영어어문교육,*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3(1). 92-110.
조일제. (2010). *영미문화의 이해와 탐방*. 서울: 우용출판사.
태혜숙. (2009).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미국문화읽기*. 서울: 도서출판 이후.
Bae, G. (2004). Looking critically at the ESL classroom: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of critical pedagogy. *English Teaching, 59*(3). 333-356.
Barton, D., & Hamilton, M. (2000). Literacy practices. In D. Barton, M, M. Hamilton, & R. Ivanic (Eds.), *Situated literacies: Reading and writing in context*(pp. 7-15). London: Rougeledge.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White Plains, NY: Longman.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Ltd.
Byram, M. (1998). Cultural identities in multilual classrooms. In J. Cenoz & F. Genesee (Eds.), *Beyond bilingualism* (pp. 187-198).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Ltd.
Byram, M., & Morgan, C. (1994). *Teaching-and-learning language-and-cultur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Crookes, G., & Lehner, A. (1998). Aspect of process in an ESL critical pedagogy teacher education course, *TESOL Quarterly, 32*, 319-328.
Crozet, C., & Liddicoat, A. J. (1999). The challenge of intercultural language teaching: Engaging with culture in the classroom. In J. Lo Bianco, A. J. Liddicoat & C. Crozet (Eds.), *Striving for the third place: Intercultural competence through language education* (pp. 113-125). Melbourne, Australia: Language Australia.
Datesman, M. K., Crandall, J., & Kearny, E. N. (2005). American ways. NY: Pearson Education.
Flowerdew, J., & Miller, L. (1995). On the notion of culture in L2 cultures, *TESOL Quarterly, 29*(2), 345-373.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Seabury Press.
Hammond, J., & Macken-Horarik, M. (1999). Critical literacy: Challenges and questions for ESL classrooms. *TESOL Quarterly, 33,* 528-544.
Hende, U. S. (1980). Introducing culture in th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13*(3), 191-199.
Kim, S. A. (2010, September). *Materials and techniques to teach culture in EFL classroom.* Paper presented at the 2010 Conference of the Foreign Languages Education, Seoul, Korea.
Kim, Y. M. (2010). Formation of intercultural identity of Korea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university students using critical literacy.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7*(3), 109-139.

Kramsch, C. (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oran, P. R. (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Massachusetts: Heinle & Heinle.

Na, Y., & Kim, S.(2003). Critical literacy in the EFL classroom. *English Teaching, 58*(3), 143-163.

Pegrum, M. (2008). Film, culture and identity: Critical intercultural literacies for the language classroom.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8*(2), 136-154.

Pennycook, A. (1999). Introduction: Critical approaches to TESOL. *TESOL Quaterly, 33,* 329-348.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collon, R. (1999)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In E. Hinkel(Ed.), *Cultural codes for calls* (pp.181-19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g, K. W. (2002). Critical theory and pedagogy: Remapping English teaching in Korea. *English Teaching, 57*(2). 65-89.

Sung, K. W. (2007). Developing a graduate EFL program based on critical theory and pedagogy.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4*(3). 95-124.

Seely, H. N. (1988).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

Tomlin, B., & Stempleski, S. (1993). *Cultural Awar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Valdes, J. M. (1986). *Culture bound: Bridging the culture gap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New York: Harvard University.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양미란
동아방송예술대학
456-717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32-18
Tel: 031-670-6605 / C.P.
Fax: 031-670-6605
Email: miran@dima.ac.kr

방영주
명지대학교
120-7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02-300-0860 / C.P.
Fax: 02-300-0860
Email:yjpark@mju.ac.kr

Received in October, 2011
Reviewed in November,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